

# 경륜의 승리...당지지율 제고·협치 등 난제 산적

## 평화당 정동영 선배 배경과 과제

민주평화당은 5일 서울 K-BIZ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에서 경륜의 정동영 의원을 새로운 선장으로 선택했다.

민생개혁을 뜻하는 일명 '정동영 노선'을 내걸고 레이스를 펼쳤던 정 의원은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세간의 비판과 신진세력인 유성엽·최경환 의원의 도전에 물리치고 당 대표 자리에 오르며 정치권의 전면에 다시 나타났다.

◇'정동영' 선배의 의미는=6명의 후보가 나선 평화당 전당의 최대 관심사는 정 의원의 당권 도전 성공 여부였다. 정 의원이 또다른 당의 대주주인 박지원·전정배 의원의 출마 반대 요구를 거부하고 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정 의원의 당권도전을 저지하기 위해 유·최 의원에게 반(反)정동영계의 표가 결집하는 양상도 보였다.

선거 초반 정 의원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후 유 의원의 상승세가 매서워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평화당 당원들은 지난 2007년 대권 후보를 지낸 정 의원의 경륜을 선택했다. 패기를 내세운 유 의원을 선선했지만 인지도 면에서 월등히 앞선 정 의원을 따라 잡지는 못했다. 당원들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당을 정비해 2020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선 유 의원이 내건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동영호'의 과제는=평화당이 창당 후 첫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 꾸린 '정동영호'는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일단 당의 존재감을 높여 바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정 대표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다. 평화당은 이번 전대 투표율이 저조했고 국민여론조사 역시 평화당 지지율을 찾는 데 애를 먹는 등 흥행몰이에 실패하면서 당의 존재

당원들, 변화보다는 안정에 투표

최우선 과제는 당 존재감 높이기

여당과의 관계설정도 묘수 필요

감을 올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사실을 목도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평화당은 1~3%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기반 강화를 위해 화두로 내세운 '협치' 국면에서 여당과 관계 설정은 당의 존립을 가를 중요한 숙제로 보인다.

당내 중진들 사이에선 '개혁입법연대' 필요성을 주장하며 여당과 밀접한 관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파트너인 여권에선 기류가 엇갈린다. 여권으로서 평화당을 끌어안는다 해도 현재 국회 지형에서 압도적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만큼 제 2야당인 바른미래당보다 오히려 고려 순위가 밀리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인 '개혁입법연대' 노선을 주장했다. 별다른 실익을 챙기지 못한 채 여당의 '2중대' 비판에만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당과의 관계를 나쁘지 않게 하면서도 야당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묘수를 찾아내는 것 역시 신임 대표의 중요한 임무로 여겨진다.

당 안팎에서는 정 대표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21대 총선까지 여권과 건강한 협력관계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각의 내실을 챙겨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평화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여권의 협치내각 구상에 대한 평화당의 명확한 입장을 하루빨리 정하고 당원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자칫 원칙 없는 대응을 하다가는 최악의 경우 여당에 흡수되거나 지리멸렬한 거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새 대표 당선인사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전당대회에서 새 당 대표로 선출된 정동영 의원이 최고위원 및 전국청년위원장 후보들과 손잡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하반기 최우선 과제는 선거제도 개혁...정의당보다 더 정의롭게 갈 것"

### 정동영 대표 일문일답

민주평화당 정동영 신임 대표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하반기 국정 최우선 과제를 선거제도로 할 것을 요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신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IZ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 일답 주요 내용.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가 무너졌는데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당장 내일부터의 총력 과제다. 교섭단체를 복원해야 선거제도 개혁 교섭의 당사자로 나설 수 있기에 17명의 현역의원들과 총력전을 펼쳐 교섭단체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

-평화당의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농어민을 위한 정당으로 만들겠다. 내일 아침 평화당 첫 회의를 첫 기차타고 부산으로 내려가 한진중공업에서 주회하고자 한다. 최근 정의당의 지지율이 급상승을 하고 있지만 정의당보다 더 정의롭게 갈 경우 평화당의 지지율

이 상승할 것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내 내용이 불거졌는데

▲평화당은 가족과 같은 당이다. 공직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당, 투명성과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을 갖고 17명의 (소속의원들) 모두가 정동영의 당 운영에 대해 흔쾌히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바람이 불게 할 것이다.

-차기 대선에 출마하나.

▲지금 대선 운운하는 것은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선 평화당 대표 정동영을 통해 당의 존재감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기자 출신, DJ 권유로 정치 입문...17대 대선 도전 '쓴맛'

### 정동영은 누구?

민주평화당의 새 사령탑으로 선출된 정동영 의원은 1953년 전라북도 순창 출생으로 전주·전주북중·전주고를 거쳐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다.

학창시절 반(反)유신 투쟁을 벌이다 투옥되기도 했고, MBC에 입사해선 LA특파원·뉴스데스크 앵커 등을 거치며 스타 기자로 활약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한 뒤 같은 해 15대 총선에서 전주시 덕진구에 출마해 전국 최다 득표로 화려하게 국회에 입성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고서 당시 전정배·신기남 의원 등 당내 소장파와 함께 '정풍 운동'을 주도했고, 40대 나이로 새천년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하는 등 야권 간판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했다.

2003년 국회의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 이후 민주당을 탈당해 이해찬, 전정배 의원 등과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뒤 당의장을 지냈고, 노무현정부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어 2007년 17대 대선 당

시 여당인 통합민주당 후보로 나섰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역대 대선 사상 최다 득표 차로 패배하면서 험난한 정치인생이 시작됐다.

2009년 탈당 후 무소속으로 전주 덕진구에 출마해 국회 입성에 성공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에 이어 2015년 관악을 재보선에서 거꾸 쓴 맛을 봤고, 탈당을 반복한 것 때문에 이미지에 상처를 입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와 손잡고 호남에서 '녹색바람'을 일으키는 데 일조했지만 화학적 결합을 이루지 못한 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문제로 내홍을 겪자 올해 2월 국민의당을 탈당해 평화당 창당에 동참했다. 부인 민혜경 씨(62)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전북 순창(65) ▲전주고 ▲서울대 국사학과 ▲MBC LA특파원·뉴스데스크 앵커 ▲제15·16·18·20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당의장 ▲제31대 통일부장관 ▲민주당 최고위원 ▲통합민주당 창당 17대 대통령 선거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상임 고문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장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한전 '한전공대 설립 지연·규모 축소' 보고서 '파문'

3년 늦추고 150만㎡→40만㎡로 "대통령 공약 물거품 우려" 목소리

한국전력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한전공대 설립을 늦추고 규모를 줄이는 내용이 담긴 용역 중간보고서를 내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31일 송 의원의 정책감담회에서 한전공대 조기 설립 추진과 관련한 용역 중간검토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한전은 보고서에서 ▲주주의 반발 ▲광주·전남 지역 대학 반발 ▲설립비용 7000억원 부담 ▲위치

선정 갈등 ▲한전 올해 상반기 적자 등이 한전공대 조기 설립을 가로막는 애로사항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용역업체 측은 대학설립표준기간을 근거로 애초 목표인 2022년에서 3년여 미뤄진 2025년경에나 공대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대 부지 규모도 예상했던 150만㎡가 아닌 40만㎡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설립부지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전공대 설립에 관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는 지역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물론 대통령 공약을 자칫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한전이 2022년 공대 설립을 목표로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이

지 않는다"면서 "오는 2022년 개교 계획을 맞추려면 늦어도 내년에는 무조건 첫 삽을 떠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한전의 이 같은 입장에 반발해 조만간 입성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단순히 한전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약속대로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한전공대 조기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정치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며 보고서는 용역업체에서 검토 중인 현 단계 애로사항을 나열해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두 눈에 청춘을, 신세계안과 노안수술

- 카탈리스 레이저 노안수술 2,000례 달성 (3D OCT와 레이저를 통한 수술의 정확도와 안정성, 성공률을 보장하는 신개념 최첨단 수술 시스템)
- 다초점 렌즈 삽입술로 노안 해결
- 다양한 다초점 렌즈 보유하여 눈에 가장 적합한 렌즈 삽입 (펜옵티스, 리사트리, 심포니, 테크니스, 파인비전 등)
- 각막 후면 난시 제거 수술이 가능한 '카시니' 장비 도입 (GPS방식으로 측정·분석)
- 수술결과를 향상시키는 안구 네비게이션 '베리온' 도입
- 1 DAY 노안수술 가능
- 백내장 진단 시 실손보험 적용 가능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1566-9988**

##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